

8월 '광양여행 가는 날'... 제철 '가을 전어' 즐기세요

광양시티투어 코스 참여자 모집
전어 축제·망덕포구 관람 일정
음악·체험·먹거리 한자리에서
24·25일 선착순 사전 예약 운영

광양여행 가는 날 프로그램에 선정된 광양 전어축제가 관람객들을 모으고 있다.

광양시는 달마다 가장 특색 있는 코스를 개발해 운영하는 광양시티투어 광역코스 '광양여행 가는 날'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8월 '광양여행 가는 날'은 가을의 서막을 여는 '제23회 광양전어축제'와 연계해 야경과 음악분수를 일정에 포함했으며 축

제 기간 중인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운영한다.

오는 24일은 오후 3시 유스퀘어 3번 출을 출발해 이순신대교 홍보관, 배알도 섬정원 등을 돌아보고 광양전어축제가 열리는 망덕포구 일원에서 축제와 야경을 즐긴 뒤 오후 11시30분에 광주 유스퀘어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25일은 오후 3시 유스퀘어 3번 출을 출발해 배알도 섬 정원을 거닐고 망덕포구 일원에서 광양전어축제를 즐긴 후 마동생태공원 음악분수를 방문하며 오후 10시 30분에 유스퀘어에 도착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8월 광양시티투어 광역코스는 출발시간과 탑승 및 하차 장소는 같지만, 투

어 일정과 도착시간은 다소 상이하므로 예약 시 유의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남도한바퀴 홈페이지 시티투어 코너 '광양여행 가는 날'에서 접수하거나 유선 전화(062-360-8502)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1만5000원이며 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등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김성수광양시관광과장은 "광양 시티투어 8월 광역코스는 제23회 광양전어축제와 연계해 음악과, 체험,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배알도 섬 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은은한 야경, 경쾌한 선율과 시원한 분수를 내

뽐는 음악분수 등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광양여행 가는 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백운 복분자' 남도 우리술 품평회 '우수상'

광양시는 ㈜백운주가(대표 최창석) '백운 복분자'가 '2024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도가 주최하고 ㈜전남전통주 생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전남 농산물로 만든 남도 술의 품질과 인지도를 향상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개최됐다.

지난 13일에 열린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백운 복분자'는 매년 주류품평회에서 입상하는 명품 전통주다. 해당 제품은 풍부한 일조량을 받고 자란 광양 복분자를 저온 숙성해 본연의 맛과 향을 간직하고 있으며 은은한 단맛, 감칠맛이 뛰어난 술로 알려졌다.

㈜백운주에서는 '백운 복분자' 외에도 광양 최고 품질의 매실을 활용한 증류

주 '별해주1941', 매실 특유의 새콤달콤한 향과 곡물의 고소한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매실막걸리', 신선한 과일의 단맛과 신맛이 조화롭고 깔끔한 '백운 복분자 와인', '대나무술' 등 다양한 전통주를 선보이고 있다.

㈜백운주가 측은 "좋은 술을 만들고 싶어 최고 품질의 농산물과 백운산 기술의 맑은 물로 술을 빚는다"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전통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순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통주는 농업과 같이 성장해 가는 주요 가공산업이다"라며 "(주)백운주와 같은 지역 우수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는 지난 15일 진월면 차사리 일원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벼를 수확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중마동, '노인일자리아업' 노동자... 혹서기 안전 당부

광양시(중마동)는 16일 조동수 중마동장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노인일자리아업 작업 현장을 방문해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혹서기 안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마동에서 노인일자리아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90명이다. 중마동사무소는 이들을 아홉 개 조로 편성해 보행자 도로의 잡초를 제거하거나 담배꽂초, 날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과 근린생활시설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동수 중마동장과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르신들에게 준비해간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을 안내했다.

조동수 중마동장은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본인 스스로 온열질환 증세를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위 동료들도 서로 신경 쓰고 배려하며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함께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봉강면, 경로당 23개소에 식탁 세트 및 냉방용품 전달

광양시(봉강면)는 사업비 1800만 원을 투입해 입식 식탁 세트 및 냉방 용품 등을 경로당 23개소에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봉강면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올해 추진됐으며, 지역 경로당에 식탁과 냉방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좌식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바

다에 앉아있으면 무릎이 아파 불편했는데 이제는 식탁에 앉아 밥도 편하게 먹고 담소도 나눌 수 있어 너무 좋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봉강면장은 "이번 물품 지원이 기존 경로당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길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욱 편안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진월면 차사리에서 올해 '첫 벼' 수확

광양시는 지난 15일 진월면 차사리 일원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벼를 수확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가는 지난 4월 첫 모내기를 시작한 이후 집중호우와 폭염 등 어려운 기상 조건에도 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벼를 재배했고 이날 첫 수확의 기쁨을 거뒀다. 정인화 광양시장도 이날 첫 벼 수확 작업에 함께

참여해 그동안 농민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격려했다.

수확한 '첫 벼'는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재배한 '향철야'라는 조생종 품종으로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구수한 향기가 나는 기능성 쌀이다. 벼는 직거래를 통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량 판매할 계획이며, 이번 조생종 벼 수확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중

순까지 벼(1207ha)를 수확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장마철 폭우, 극심한 온도 변화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식량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라며 "관내 벼 수확이 끝날 때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품질 벼 수확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읍, 위기가구에 '계절가전' 지원

광양시는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희상, 민간위원장 허형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에 맞춤형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은 온열질환과 식생활 영양 불균형 위기에 놓인 홀몸 어르신, 중증질환자, 장애가구, 사례관리 및 은둔형 위기가구 등 총 24가구를 현장 확인을 통해 발굴해 연계한 바 있다.

또한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인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계절가전을 지원받은 수혜 가구원은 "올해 들어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져 버티기 너무 힘들었는데 에어컨을 선물해주어 정말 고맙다"라며 광양읍사무소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 왔다.

허형채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과 연계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을 함께해 주신 단체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계절가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각 가정에 필요한 품목을 나눌 수 있어서 더 뜻깊었다"라

고 말했다.

권희상 광양읍장은 "광양시 취약 계층 중 40% 이상이 광양읍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 역할에 여러 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모습에 또 한번 놀랐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주시는 민간단체들이 있어 너무 든든하다"라며 "행정력과 민간 자원이 결합될 수 있는 환경을 확고히 다지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광양=안영준 기자